

지역 소식통

코로나 극복 위해 완주군 간부 47명 급여 기부

박성일 완주군수에 이어 완주군 간부 공무원들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급여 반납에 동참하고 나섰다.

13일 완주군은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들이 1개월분 본봉의 3% 반납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말 박 군수가 4개월분 월급의 30% 반납을 결정한 것에 이은 것으로 간부급 공무원 47명 전원도 동참하기로 했다.

급여 반납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성덕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지원

김제시 성덕면(면장 강기수)은 2020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관내 26개 경로당 가운데 12개소를 선정하여 도배·장판 및 욕상방수, 노후전기시설 교체등의 사업을 순조롭게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성덕면이 5,000여 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은지 오래되고 낡아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코로나 19로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른 신들이 향후 경로당을 이용할 때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 사회복지시설평가 A등급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이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지난 2016년에 이어 2회 연속 A등급을 평가 받았다.

전국 344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시설·환경 ▲재정·조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영역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전라북도에서는 19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평가 받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다양한 출산율 제고 정책 시행

완주군, 출산장려금·축하용품·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첫째아 50만·둘째아 100만·셋째이상은 600만원 지급



완주군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장려금과 출산·육아용품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3일 완주군은 저출산 극복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과 육아를 위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군의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50만원(일시금 지급), 둘째아 100만원(첫달 30만원, 다음 달부터 매월 10만원씩), 셋째아 이상에 600만원(분기별 30만원씩 4분기, 5년간)이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다. 또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모 중 1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다른 1명은 신생아 출생 전부터 현재까지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도 지원 대상이 된다.

출산장려금 지급도중 부모와 지원대상인 아이 중 한명이라도 전출을 하게 되면 지급이 중지된다.

출산축하용품은 신생아 내의, 수면조끼, 빨랑이세트, 치아발육기가 포함된 어있는 세트이며 또한, 출산축하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해 완주한우협동조합의 후원을 받아 소고기와 산모미역을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신부이며 출산한 아이는 완주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저소득층에게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를 지원한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영아(0~24개월)이다. 추가로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도 지원대상이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둘째 출생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산모가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도 지원 가능하다.

더불어 산모의 의사불명, 장기간(4주 이상)입원, 유산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조제분유 지원대상자이다.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자 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이 불가능하다.

기저귀, 조제분유의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 까지이며 지원내용으로는 기저귀(월 64,000원), 조제분유(월 86,000원)의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포인트는 3개월분씩 지급되며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다음달로 이월되지만 대상 아동이 24개월이 지나면 포인트는 소멸된다.

완주군보건소 최순례 소장은 "출산가정을 지지하고, 아이의 출생을 함께 기뻐하며, 완주군 내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가족같이 보살피는 으뜸복지 완주'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박준배 김제시장은 최근 만경을 장신리 소재 첨단농법으로 흙없는 유리온실에서 토마토 생산하는 하랑영농조합법인을 방문했다.

'농업의 미래는 스마트 팜'

하랑영농조합법인... 흙없는 유리온실에서 원격으로 토마토 생산

박준배 김제시장은 최근 만경을 장신리 소재 첨단농법으로 흙 없는 유리온실에서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는 하랑영농조합법인을 방문했다.

박준배 시장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상사업'의 추진과 발맞춰 스마트팜 선진사례를 확인하고자 직접 현장을 찾아, 3.5ha(약 1만500평)의 유리온실 내 ICT 기술을 적용하여 원격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작물 생육 정보와 환경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성하여 생산력과 수확량을 증대시키고 있는 기술들을 둘러보고, 토마토 생산 및 유통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마토 선별과 포장 등의

과정을 지켜보았다.

또한 영농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상황에서도 생산뿐 아니라 대형마트 납품, 온라인판매 등 유통관로를 스스로 확보해 큰 위기 없이 온실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앞으로 규모 있는 스마트농업의 미래를 바라보았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첨단농업 기술의 보급 확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며, 미래 농업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농가소득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기자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교원직무연수기관 선정

김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이 지난 10일 전라북도교육청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은 교육청 직속 연수기관이 개설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에 관한 연수를 장려하여, 교원 연수의 질적 수준을 제고 하기 위해 제도이다.

'호남, 김제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운영하는 이번 교원 연수는 오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총 3일 과정으로 진행되며 사적 김제 벽골제와 김제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강연과 답사로 구성되어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교원들은 '나라 안에서 가장 큰 호수'이자 호남(湖南, 벽골제 호의 남쪽)이라는 지역 별칭의 유래가 된 김제 벽골제와 호남평야의 노른자인 김제 만경평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또한, 오천년 농경문화와



우리 민족의 근기인 땅심을 주목하여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호남 정체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신형순 벽골제이리랑사업소장은 "이번 교원 연수를 통해 김제와 벽골제를 주제로 우리 호남지역 역사를 공유하고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박성일 완주군수, '코로나19 대책회의' 서 긴장감 유지 당부

완주군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주민들의 참여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병·의원 관리 강화 등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13일 오전 군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22일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추진된 후 3주가량 지나며 피로도가 가중될 수 있지만 초반의 긴장감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병·의원 관리와 해외입국자 안전보호업 관리, 자가격리자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또 "PC방과 노래연습장 등과 위생업소, 민간 신고체육시설,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 등의 방역

대책도 느슨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병원 입원환자 면회객 제한 등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홍보하고 협조를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지역 내 병·의원 입원환자의 경우 원칙적 면회 제한과 면회 희망 시 영상통화 허용, 방문자 명단 작성과 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과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 지역 내 병·의원은 102개소에 달하며, 여기에는 입원환자 1,600여 명과 종사자 700여 명, 간병인 100명 가량이 입원해 있거나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군은 병·의원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주말 외출 자제와 동선 파악, 신규 채용 간병인 코로나 진단검사의무화, 직원 채용 시 코로나 진단검사 권장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완주군은 또 위생 취약업소의 방역소독을 집중 점검·추진하고, 체육단련장과 체육도장 등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대해서 2차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완료되는 오는 19일까지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PC방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반과 합동점검반을 오는 19일까지 운영해 영업중단 여부와 준수사항 이해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지속 점검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